

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2012년 5월 통합 결과

## 대선 후보 박근혜-안철수 지지도 변화 분석

### 조사개요

1. 모집단: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
2. 조사지역과 표본크기: 전국 5,880명
3. 조사방법: 휴대전화 RDD 조사  
(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)
4. 조사기간: 2012년 4월 30일~5월 25일(매주 월~금, 단, 공휴일 제외)
5. 표본추출: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
6. 표본오차:  $\pm 1.3\%$ 포인트(95% 신뢰수준)
7. 응답률: 조사기간 내 평균 18%

**문의**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02-3702-2571/2622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Q&A

대통령 선거의 지지도 경쟁은 운동경기로 치면 마치 농구와 유사하다. 공을 가진 누군가가 공격권을 가지고 있고 이 공을 가로채거나 슛이 불발이라도 하게 되면 공수가 바뀐다. 한번 가로채기에 성공하면 5점 차이를 좁힐 수 있고 10점이 멀어 보이지만 1~2분 사이 공수를 교대하다 보면 금방 따라잡기도, 따라 잡히기도 한다.

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에서 5월은 총선 이후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다. 여야 대선 유력 후보인 박근혜 대 안철수의 경쟁 구도에서 4월 대비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3%포인트 상승,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4%포인트 하락하며 두 주자 간 차이가 10%포인트에 가까워졌다.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? 설명이 필요하다.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둘 것은 한두 번의 공수교대만으로 이 차이는 쉽게 좁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.

특히, 안 원장은 5월 30일 부산대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정치 참여에 대해 여전히 고심 중임을 내비쳤다. 제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안 원장의 신중한 행보는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.

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5월 통합 결과에서는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대선 후보 박근혜-안철수 양자 구도 변화를 통해 여당과 야권, 보수와 진보 진영이 처한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았다.

**5월 보수 대 진보 후보그룹 간 접전에서 바람은 보수 쪽으로 불고 있다**

**- 보수는 박근혜로 결집, 진보는 안철수, 문재인 이후 공전 중**

굳이 말하자면 5월 현재는 보수의 공격 타이밍이다. 연초 돈봉투 파문 등으로 새누리당(당시 한나라당)은 위기에 내몰렸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, 당명을 변경하는 등 쇄신을 감행했다. 진보 진영은 4.11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통해 온 힘을 다해 쏠을 날렸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. 공을 빼앗기고 수비에 나섰으나 계속 우왕좌왕이다. 설상가상으로 통합진보당은 내홍으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.

양 진영의 모습을 보면 보수는 한 곳, 박근혜를 중심으로 모이지만 진보는 안철수, 문재인 이외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.

▶ 주요 대선 후보 지지도-다자 구도

구분		1월	2월	3월	4월	5월
여권	박근혜	31	33	34	36	38 (+2)
	정몽준	2	2	3	2	3 (+1)
	김문수	2	2	2	1	2 (+1)
야권	안철수	28	22	21	23	23 (-)
	문재인	10	15	16	13	11 (-2)
	손학규	2	3	2	2	2 (-)
	김두관	0	0	1	1	1 (-)
여권-전체		36	37	38	40	43 (+3)
야권-전체		42	41	40	40	36 (-4)

\*단위 %, ( ) 안은 전월 대비 변화

5월 대선 후보 지지도-다자 구도에서 박근혜 38%, 안철수 23%, 문재인 11%다. 박 전 위원장 지지도는 1월 31%부터 시작해 5월 38%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. 안 원장은 2월 이후 22%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.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, 3월에 상승하던 것이 4월 이후 하락하고 있다. 주로 거론되는 여권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를 모두 더하면 43%로, 야권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를 더한 36%에 앞선다. 4월에는 40% 대 40%로 같았다.

새누리당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아직 박 전 위원장을 위협할 만한 정도의 파위가 없다.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, 김문수 지사 모두 2~3%에 불과하다.

진보 진영에서는 1월까지 안 원장에 힘이 몰리던 것이 2, 3월에 문 상임고문으로 쏠리더니 5월에는 둘 다 위축된 상태다. 안 원장은 권력 의지와 정치인 아이덴티티가 불명확하고, 문 상임고문은

총선을 통해 드러난 득표력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냈다. 결국 진보 후보 전체 지지도를 합해도 박 전 위원장에 미치지 못한다.

**보수에 4~5%포인트를 더하는 박근혜, 진보에 1%포인트를 더할 뿐인 안철수**

박근혜 대 안철수 양자 구도의 변화는 현재 상황을 더 극명하게 보여준다. 5월 들어 박 전 위원장은 전월에 비해 3%포인트를 더했고 안 원장은 4%포인트를 잃었다. 박 전 위원장은 다자 구도의 보수 후보 전체 지지도에서 3~5%포인트를 더하는 반면 안 원장은 (1월을 제외하고는) 1%포인트를 더할 뿐이다. 결국 양자 간 차이가 10%포인트 가까이 확대됐다.

안 원장은 수세에 처한 진보 진영에 아직 강력한 힘을 더하지 못하고 있다. 반면 박 전 위원장은 항상 보수 진영 전체 지지도에 3~5%포인트를 더해왔다. 평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기대 곳은 항상 박 전 위원장이었다.

▶ 대선 후보 지지도-양자 구도: 박근혜 vs. 안철수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
박근혜	40	43	43	43	46 (+3)
안철수	46	42	41	41	37 (-4)
모름/무응답	14	15	16	16	16 (-)

\*단위 %, ( ) 안은 전월 대비 변화

**수도권에서 박 위원장의 우세 시작**

안 원장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은 수도권 화이트칼라와 학생이다. 그런데 총선 이후 5월 들어 박 전 위원장이 수도권에서도 안 원장을 추월했다. 수도권은 총선에서 야권 연대의 손을 들어준 지역으로 실질적인 야권의 최후 보루다. 향후 야권이 대세를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광주/전라와 수도권의 지지를 더 확보해야 한다.

이외에도 중립 또는 유동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대전/충청, 부산/울산/경남에서 박 전 위원장은 상승했고, 안 원장은 하락했다.

▶ 대선 후보 지지도-양자 구도: 박근혜 vs. 안철수 - 지역별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
서울	박근혜	35	39	37	39	43 (+4)
	안철수	51	45	45	44	40 (-4)

인천/경기	박근혜	38	40	40	42	45 (+3)
	안철수	48	44	43	41	39 (-2)
강원**	박근혜	46	44	50	46	54 (+8)
	안철수	44	40	33	29	28 (-1)
대전/충청	박근혜	46	48	49	47	53 (+6)
	안철수	38	36	37	37	33 (-4)
광주/전라	박근혜	16	14	21	18	17 (-1)
	안철수	62	67	63	67	62 (-5)
대구/경북	박근혜	59	65	64	60	63 (+3)
	안철수	30	26	25	23	21 (-2)
부산/울산/ 경남	박근혜	48	53	51	51	55 (+4)
	안철수	41	33	35	34	30 (-4)
제주**	박근혜	49	40	43	53	48 (-5)
	안철수	42	34	44	35	39 (+4)

\*단위 %, ( ) 안은 전월 대비 변화, \*\*강원, 제주는 200사례 미만으로 월별 비교에 유의

###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박근혜 쏠림 현상 심화

20/30대와 50대 이상 세대 간 지지도 차이는 더 극명해졌다. 그 분기점이 되고 있는 40대는 총선을 전후로 안철수에서 박근혜 지지로 무게 중심을 서서히 옮겨가는 양상이다. 안 원장은 핵심 지지층 20/30대에서 여전히 강세다. 그러나 50대 이상에서는 박근혜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.

#### ▶ 대선 후보 지지도-양자 구도: 박근혜 vs. 안철수 - 연령대별

구분		1월	2월	3월	4월	5월
19~29세	박근혜	29	33	31	31	32 (+1)
	안철수	62	55	55	54	51 (-3)
30대	박근혜	26	28	29	27	32 (+5)
	안철수	63	58	57	57	55 (-2)
40대	박근혜	36	39	41	41	43 (+2)
	안철수	51	46	44	43	41 (-2)
50대	박근혜	54	55	56	54	60 (+6)
	안철수	33	31	28	30	25 (-5)
60세 이상	박근혜	57	62	59	61	65 (+4)
	안철수	21	18	22	19	16 (-3)

\*단위 %, ( ) 안은 전월 대비 변화

박 전 위원장의 지지도 확장 경향은 50대 이상 고연령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. 박 전 위원장 지지도는 20/30대에서는 여전히 안 원장에 밀리고 40대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설 뿐이다. 과연 박 전 위원장이 장년층뿐 아니라 청년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? 박 전 위원장의 한계와 불안 요소는 여기에 있다.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비전으로 경기를 독식할 만한 큰 득점은 현재 불가능하다. 진보 쪽 어느 방향에서 언제 큰 바람이 불어올지 알 수 없다.

### 새누리당은-대세론, 확장 가능성의 한계

### 야권은-인물난, 분열

현 상황과 지지도 변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. 유권자들은 일종의 여행자다. 그들의 기본 정서는 현 체제에 대한 불만, 새로운 비전의 추구다. 즉 현 정권과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크다. 대선을 앞두고 그들은 상생과 복지, 사회정의와 공정성 같은 새로운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섰다. 큰맘 먹고 여행을 떠났지만, 찾지 못하고 도로 원위치다. 그렇기에 이들은 현재의 선택에 완전히 만족한 상태가 아니다. 언제든 또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. 그 공간에 야권의 가능성,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은 계속 존재한다. 하지만 야권에서 새로운 비전이 될 만한 인물은 부족하고 작은 이슈에도 분열하기 일쑤다 보니 되는 듯하면서 되지 않는다. 아직 어느 쪽이든 가능성은 충분하다. 그러니 결국 자멸하지 않고 연말 대선을 목표로 힘을 모아 간다면 누구든 승산이 있다.

**작성일** 2012년 5월 30일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02-3702-2571/2622

-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12년 1월부터 자체 조사하여 일간, 주간, 월간 단위로 제공하는 정치지표입니다. 한국갤럽 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(휴대전화 RDD 조사) 매일 300명 이상, 매주 1,500명 이상 유효표본(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)을 인터뷰합니다.
-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이전 한국갤럽 홈페이지([www.gallup.co.kr](http://www.gallup.co.kr))와 블로그([gallupkorea.blogspot.com](http://gallupkorea.blogspot.com))에 공개합니다.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으며, [구독 신청](#)하시면 주간 리포트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
- 매월 초에는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월간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합니다. 매월 1~4주 통합 결과를 담은 월간 지표는 유효표본 6,000여명 규모로 전국 8개권역, 성별, 연령별, 직업별, 이념성향별 단위에서도 의미 있게 추이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 전체 26개 분석 단위 중 강원, 제주 지역, 그리고 농/임/어업 직업군을 제외한 23개 분석 단위의 유효표본은 최소 500명 이상입니다.
-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는 한국갤럽의 자산이므로 상업적 용도의 재판매는 금지합니다.
-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.